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3년 6월호

통권 제 22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교우소식

### ♣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축하-

- 이종서 장로 - 경희대 겸임교수 임용
- 박정음 장로 - 대통령표창 수상

-새가족-

- 윤상원 - 경기도 오정구 원종동
- 김해돈 - 도봉구 쌍문동

### ♥ 감사합니다.

-감사-

- 이정섭 장로· 오군자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안종혁 목사· 강우경 사모 - 점심식사 제공
- 윤상구 장로· 양은선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백낙환 집사· 박숙란 장로 - 점심식사 제공

-기증-

- 정세장 집사· 함영림 집사 - 피아노 기증
- 신순예 권사 - 부활절 계란 1500개 기증
- 무명 - 친교실 의자 60개 기증
- 무명 - 교회 본당과 친교실 스피커 헌납
- 정세장 집사 - 면사랑 국수 50BOX 기증

### ♣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 오원표 집사· 김효수 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이민재 집사· 김규영 집사 - 전북 군산시 서수송

##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막11:17)

2013년은 안동교회가 10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안동교회는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10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의 운명이 큰 바람을 맞는 시대에 처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기도로써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지만, 우리교회와 성도들은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안동교회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17:17)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정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2013년은 기도의 해입니다. 듣고 배우고 익힌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안동교회는 교회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이며 각 부서와 모임들이 조화롭게 제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모든 모임들이 모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또한 기도로 성장하십시오. 기도는 성장

합니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3분도 지루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 1시간을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도에 재미가 붙습니다. 응답 받는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게 됩니다. 기도의 성장은 시간적인 양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동교회의 2013년 한 해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황영태 담임목사

## 1인 1섬김 (높은 어린이들)

“학교종이 땡땡 땡 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안동교회 봉사자 여러분들이 매 달 우리 높은 어린이들을 찾아와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000>수용소의 우리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달에도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서 깊은 안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97세의 최 바보라고 소개하신 어르신께서 '이승만 박사 성대모사'로 하신 인사말이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맨 앞에서 입도 떼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이야. 우리가 섬기는 요양원은 경치 좋은 평창동 산기슭에 있다. 사람들이 저택이라 부르며 정원의 소나무를 부러운 듯 바라보며 지나갈 이 요양원을 그 어르신이 <수용소>라 부르는 게 웬지 마음에 와 닿았다. 봉사를 시작할 때 누군가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봉사하라.'고 조심스레 조언하기도 했었다. 귀가 얇은 나는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하며 고민하기도 했다.

죽음의 대기표를 받아들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그리워서 기다리는 노인들, 가물가물한 치매의

의식 속에서도 어렴풋이 알아보고 웃는 표정,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 사람, 아파서 집에 갔어.” 무표정하게 말하는 옆 침상의 노인,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

인사를 하신 최바보님도 실은 최장로님이시다. 얼마 후의 우리 모습이다.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수용소 같은 세상을 떠나려는 시점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주일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모인 천국을 사모하는 높은 어린이들이다. 우리로 인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도구가 된 것이다.

생각 많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미운 영혼 예쁜 영혼이 따로 있느냐.'며 무거운 앰프를 옮기며 땀에 젖던 강집사님은 진작 알아본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겠다.

강재덕 권사

## 유 · 소년부 소식

이번 호 유소년부의 소식은 지난 2월 23일 토요일 교회에서 열렸던 유소년부의 겨울성경학교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유소년부의 겨울 성경학교는 '생활의 발견-우리 기도하자!' 라는 주제 아래 25여명의 유, 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른들이 2013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어를 정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훈련하듯이 유, 소년부 친구들도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기도에 관해 배우고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작정 기도에 관해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성경학교 전 주에 미리 친구들이 기도에 관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질문지를 받았습니니다. 친구들이 기도에 관해 궁금해 하는 것을 기초로 기도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등을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 소년부 예배 시 친구들이

예배위원으로 대표기도와 헌금위원 등을 맡아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대표기도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엄지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검지는 회개와 감사하기, 중지는 간구하기, 약지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하기, 소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하며 아멘으로 고백하여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관해 배우는 것과 더불어 즐거운 게임시간, 코너 학습도 하였습니다. 조별로 나눠 주사위 불링, 눈 가리고 촉감으로 사물 맞추기, 몸으로 하는 목찌빠, 손 안대고 이마에 놓인 과자 먹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올림피아드를 진행 하였는데, 친구들이 너무도 신이 나서 열중하는 모습에 선생님들도 덩달아 신이 난 아이 마냥 동심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각 조마다 글자를 나눠주어 자기 조에 주어진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완성하는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과 더불어 말씀 암송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너 학습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색지에 예쁘게 적어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래의 코람이와 하연이의 어려운 형편을 담은 영상을 보며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문을 적고 직접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코람이와 하연이를 위해 기도문을 작성하고 중보 기도하였던지 코너를 맡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기도를 잘하는지 몰랐다면 너무 감동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분명 같은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기도에 대해 신이 나서 자랑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유소년부의 겨울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빌어 이번 겨울성경학교 때 친구들의 식사와 간식을 준

비하는 일에 수고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경학교가 마치기까지 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수고해주신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 소년부를 위해 기도로 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 중, 고등부 소식

2012년 12월21일 우리와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최진오 전도사님과 마지막 행사인 졸업여행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여행이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며 전도사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했다. 전도사님과 마지막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기쁨과 동시에 아쉬움과 슬픔을 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이브 행사로 중, 고등부 모두가 나와 올나이트를 하면서 서로 교체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올나이트였지만 이제 떠나게 될 전도사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갖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우리는 최대한 이별이라는 슬픈 마음을 지우고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서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까지 전도사님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즐겁고, 기뻐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던 전도사님의 열정과 헌신들이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우리 중, 고등부는 전도사님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김유태 목사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해 어쩔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목사님이 먼저 아이들 곁에 먼저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애쓰셨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오랫동안 같이 했던 전도사님을 기억하면서도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고 마음을 열수 있었다. 현재 새로 중, 고등부로 부임한 목사님과도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너무나 편하고 즐

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새로 부임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사와 새로 들어온 중1 신입생 학생들과도 친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중, 고등부가 너무나 기대된다. 중고등부 임원이 선출되어 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매달 자치회를 통해 친교 및 모임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앞으로 중, 고등부가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정석 중, 고등부 회장

## 청년부 소식

(뜨거운 여름을 바라보며.....)

새로운 해를 맞아 청년부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원과 소모임 리더를 새로 뽑았습니다. 앞으로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세심히 챙기며 청년부의 내실을 다져 나갈 기틀이 잡히게 됐죠. 이들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소박한 믿음 속에서 저희 청년부가 내딛은 첫걸음은 지난 1월에 있었던 동계 수련회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와 달리 저희 교회 내에서 열린 수련회는, 오랜만에 교회 안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그런지 보다 새롭고 은혜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각자의 영적인 고민과 기쁨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회는 중보기도라는 새로운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즘 저희 청년부에 들르시면 3부 예배의 자랑인 하바 찬양팀원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리더로 수고했던 정지혜 청년을 뒤이어 찬양팀 리더가 된 노주희 청년은 물론이고 이재영, 이해창, 최

아라, 방예진, 이형권, 이지혜 청년의 참여로 찬양팀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같이 예배드리던 이들이 부족한 여건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부원들도 많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모습이 있죠. 올해부터 저희 청년부는 매 달 첫 주에 1, 2부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예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팀의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청년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모아 시작한 예전 예배 시간은 앞으로 청년부원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부는 많은 것이 새롭기에 어색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 창조주와 구세주를 믿고, 또 알게 된 감사와 사랑으로 묵묵히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도 이르지 않은 이 시기지만 청년부는 벌써부터 여름 수련회와 앞으로 올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안동교회 청년부원들의 기쁨 넘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본승 청년부 회장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가정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지키고 있다. 이 모든 기념일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일이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함이다.

오늘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따라 가정 역시 이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변화는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정신은 작아지고, 가정의 위기를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그 출발에 있어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주신 이유는 첫 사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가정이라는 원초적 공동체 가운데서 발현되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의 기초는 결합된 부부이고 이는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관문으로서의 결혼이 믿음의 길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바람직한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한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성경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 생명과 은총에 뿌리내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행복의 근간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축복의 그릇이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교회이고 최소의 교회이다. 가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지성소이다. 가정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이요 축복의 회복인 것이다. 가정의 회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는 5월로 만들어 가자.

## 도둑질 않는 교회가 되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십계명 중 하나이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따라서 도둑질의 개념도 변했다. 교회 행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무기기인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SW)는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불법 SW를 설치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정품 SW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회가 ‘클린사이트’ 정책을 펴고 전국교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현황을 들여다 보면 교회와 목회자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글과컴퓨터’라는 토종 브랜드 회사와 협력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매년 한 차례 14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3000개 교회가 참여하면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각자 보유한 컴퓨터 대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품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총회의 이번 정책이 성공하면 특히 자립대상 교회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PC를 보유한 대형 교회가 보는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단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정

품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SW 없는 청정 SW 교단'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같은 이미지는 '클린사이트' 정책으로 총회 산하 8400개 교회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에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 효과다.

총회와 '클린사이트'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전국 교회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응답률은 기대이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겨우 미자립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행정담당 부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냉담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교단 차원에서 이같은 시도가 이뤄지는 것은 본교단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교단 총회의 이같은 시도는 SW개발 회사에게도 얼마간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 SW의 척결 문제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정책으로 본교단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수익은 SW 회사의 그것보다 월등히 크다.

'도둑질하지 않는 교회'는 담임목사는 물론 부교역자와 재정담당자, SW를 담당하는 행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좌우하게 됐다.

## 청년세대를 생각하라

한국교회는 최근 몇 년간 다음세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본교단이 총회 주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반화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교회들마다 다음세대를 빼고 정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이다.

이러한 교회의 관심에 또 다른 소외 계층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된다. 바로 '청년세대'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세대를 청년세대로 분류한다. 교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청년을 분류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 청년세대는 학업을 계속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생애주기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경제한파 이후 위기 상황에 처해 신음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우리 사회는 3포세대(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한다. 교회적으로 보면 3포에 하나를 덧붙여 '4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교회' 출석, 즉 신앙 마저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세대에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이 많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6%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중에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2,30대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 이상의 고(高)학력자가 82.2%를 차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의 70%가까이가 초 중 고등학교 당시 교회에 출석했다. 상당수가 부모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오늘 교회 내 청년세대의 문제는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에 무관심했던 한국교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청년의 위치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선교활동 등은 물론이고 교회내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기보다는 교회의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총회 청년주일을 계기로 청년세대에 대한 형식적인 관심이 아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걱정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다음세대로 대표되는 아동, 청소년이 한국교회의 미래라면, 청년은 한국교회의 현재이다. 즉 현재가 없으면 미래는 더욱더 기대할 수 없다. 교회가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 일상 속 작은 폭력도 근절 대상

지난주에 열린 117년 역사를 가진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미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따뜻한 봄날, 흥겨워야 할 마라톤 축제 현장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돌변했다. 여덟 살 난 어린이를 비롯해 세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8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미국 사회는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12년 만에 또 다시 테러의 공포에 몸서리쳤다. 테러범 용의자 중 한 명은 추격과정에서 사살되었고 그의 동생으로 알려진 젊은이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아직 테러의 동기나 배후, 그리고 공범자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보스턴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그 명분이 어떠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여덟 살 난 어린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는 테러는 야만적 행위이다. 수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테러는 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상으로 살상하는 테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전쟁과 더불어 테러는 세상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惡)임이 분명하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테러와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 우리나라도 핵전쟁의 위협 아래 있다. 이제 평화는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시며 평화를 가능케 하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평화다. 예수님께서도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이유들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중세의 성인 프란시스의 기도야말로 폭력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드러야 할 우선적인 기도여야 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일상에서의 비폭력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록 그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사회에도 각종 형태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문화재를 불태우며 멸절한 자동차 바퀴를 터뜨리거나 이유 없이 행인을 칼로 찌르는 '묻지마 살인'도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주차문제로 이웃의 목숨까지 빼앗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일상에서의 작은 폭력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테러도 전쟁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장애인, 우리 모두의 벗

본교단 제97회 총회는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벗'이라는 주제 아래 작은이들(가난한 이, 다음세대,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동포의 벗, 갇힌 자, 국군장병, 농어촌교회)을 향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펼칠 것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가 품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교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구호와 함께 올해 4월에도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제74회 총회 때, 4월 중에 장애인주일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 결과이다. 장애인주일의 준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고취와 선교적 복지와 인권과 평등을 영적이고 목회적 차원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단의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장애인주일을 준수하고 있는가?

한국의 장애인들은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백 50만 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교회는 최소한 5% 정도의 장애인이 교회마다 있어야 하는데, 정말 다양한 장애인이 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교회는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를 향해 무엇을 외칠 수 있을까?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장애인들의 벗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진정 장애인들이 우리 모두의 벗이라면 다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장애인주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린이주일이나 어버이주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로, 교회 주변의 장애인 파악과 관심과 사랑을 쏟는 일이다. 장애인은 단순히 선교나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한 일원이요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체이다. 셋째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생활에서 예배 직제 직분 교제 전도 교육 봉사 등 모든 영역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단지 복지의 수혜자 내지는 대상자가 아니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보혈로 맺은 형제자매라는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이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개선한 장애 친화적인 환

경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총회 · 연합회 · 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pckworld.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복존우물가

2013년 13월호 · 통권 제 224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김 유 태

발행일 : 2013년 3월 15일